

이재명 강세, 이낙연 하락, 윤석열 추격...굳어진 3자 구도

새해 여론조사로 본 대선 기상도

10개 여론조사 중 8개 이재명 1위

이낙연, 1곳도 1위 못하고 2·3위

윤석열, 30%대 깜짝 1위 조사도

여야 모두 대선구도 요동 불가피

새해를 맞아 각 언론사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3자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MBC, SBS, 한겨레,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 서울신문, 데일리안, 뉴스1, KSOI 등 10곳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강을 형성했다.

서울신문 의뢰로 현대리서치연구소가 대권후보군 다자대결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는 26.7%, 윤석열 총장은 21.5%, 이낙연 대표는 1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 총장을 앞섰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8.2%로 오차범위 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낙연 대표(16.2%), 윤석열 총장(15.1%)이 추격하는 모양새였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지사는 이 조사에서 24.6%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19.1%, 윤석열 총장은 18.2%였다.

한겨레-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23.8%의 지지율을 보였고 윤석열 총장은 17.2%, 이낙연 대표는 15.4%를 기록했다.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진행한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20.8%를 차지했고 윤석열 총장은 18.2%, 이낙연 대표는 17.5%로 뒤를 따랐다.

SBS-인포스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23.6%, 윤석열 검찰총장은 18.5%, 이낙연 대표는 16.7%의 지지율을 보였다. 뉴스1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선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했다. 윤 총장 선호도는 25.1%, 이낙연 대표는 20%, 이재명 지사는 19.8%로 집계됐다.

이처럼 이재명 경기지사는 10곳의 대선후보 여론조사 가운데 8곳에서 앞서 나가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속에서 강한 리더십과 대처능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세 국면속에서 조금씩 밀리는 모양새다. 이낙연 대표는 10개 조사 모두에서 1위를 놓쳤고, 각각 5개 조사에서 2위와 3위 주자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총장은 2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각각 4개 조사에서 2위와 3위 주자로 나타났다.

특히, 새해 들어 처음 이뤄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30%를 넘기며 오차범위를 벗어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은 보수층과 중도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은 15.0%로 뒤를 이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가면서 여론내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야권 대선 주자군 가운데 압도적 지지를 얻으면서

'대선 직행'이 가시화되는 등 야권의 대선 구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판세 변동은 피할 수 없는 일 이라면서도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는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대선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제3후보의 동력 마련도 쉽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이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전체적인 대선 판세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차기 대선 구도는 결국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며 변수는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김태원 원내대표,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최고위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 대표의 사무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 심상찮다”...민주당 일각 서울시장 선거 김동연 차출론

후보 10여명 흥행몰이 야권에 대응

박영선·우상호 등 모두 지지율 밀려

내외부 인사 경선 컨벤션 효과 기대

차기 대선 전초전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까지 지기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는 야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보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정도 외에 안 대표에게 여권 주자들이 크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이른바 '제3후보'에 대한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영선 장관은 다음 개각으로 내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

오지만 불출마 관측도 없지 않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이 여의도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0명 안팎의 후보가 다투면서 흥행몰이에 나설 야권과는 크게 대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김 전 부총리가 거론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 전 부총리는 상고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뒤 행시에 합격,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부총리까지 지낸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다. 행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내면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김 전 부총리가 출마한다면 중도 진영으로의 확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신인인 김 전 부총리로서는 '경선 리스크'는 무척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가 되기 위한 당원 자격 요건을 사실상 없애 김 전 부총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다. 기존에는 당원권을 행사하기 6개월 전 입당해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만 공식선거 후보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번 재보선의 경우 입당해서 당비를 내면 바로 후보 자격이 생기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1월 중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는 너무 중요한 선거"라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제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1월 중에는 어떻게 됐든 평가 정해야 할 것 같다. 길게 보면 설 연휴 전에는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특유의 역동적 경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우상호 의원을 비롯, 민주당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용광로 경선만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나까지 입장 밝히면 대통령에 부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침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 ‘국민통합’이라는 평가와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지사의 입장 표명 유보는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우선 연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유력 후보 3강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이 대표가 사면론을 들고나온 것이 지지율 회복을 위한 승부수라면, 11개 중 8개 조사에서 선두에 올라선 이 지사의 입장표명 유보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위치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지사가 “대통령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은 당내 친문 세력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당내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자칫 이 대표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져 당과 지지자들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우리 진영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 고 유권한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지사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점도 이번 사면론에 대한 태도 유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3월 ‘선(先) 청산, 후(後) 통합’의 원칙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하며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치유와 통합은 행위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사회질서가 작동되도록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